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714.21	코스닥	872.29
	(-27.79)		(-10.61)
금리 (연이자율)	3.329	환율 (원/달러)	1352.80
	(-0.009)		(+5.70)

'집단유급 막자'
의대수업 속속 재개
02



삼성·SK, 바이든 보조금 업고 美 반도체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설립에 미 반도체법의 지원이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미국 내 공장 건립을 알린 후 설비 추가에 난항을 겪던 삼성전자도 생산기지 확충 소식을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기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추가 고객사 확보에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소식은 주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해 국내 전자기업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및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美에 5.2조 투자
최첨단 칩패키징 생산기지 추진

삼성, 美 투자규모 2배이상 늘려
텍사스주에 생산시설 추가 건립

지난 4일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엠펜에 첫 미국 내 최첨단 칩패키징 생산기지 설립을 공식화 한 데 이어 5일에는 삼성전자의 생산기지 추가 건립 소식이 전해졌다.

두 기업의 미국 생산기지 추가 건립 및 신설은 공급망 안정화 및 추가 고객사 확보도 있지만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지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 달러(약23조원)에서 2배 이상 늘린 440억달러(약59조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사실 여부에 관해 함구했다. 미국 상무부도 외신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엠펜에 38억 7000만 달러(5조 2000억원)를 들여 칩패키징 공장을 건

립하고 2028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생산기지에서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생산할 예정이며 인근 관련 연구로 정평이 난 퍼듀(Purdue) 대학교와 연구 개발 협력을 통해 관련 선두주자를 굳힐 계획이다.

두 기업이 미국을 선택한 데에는 현재 두 기업의 핵심 상품인 HBM(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엔비디아를 포함해 대다수 미국 내 위치한 데 있다. 공급망 안정화 및 고객사 유치 영업을 위해서도 미국 내 공장이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공장 리쇼어링(Reshoring, 자국 생산시설 국내 귀환) 정책에 따른 과격적인 지원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 법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12월 첫 보조금 혜택 기업을 선정했다. 반도체법으로 확보한 540억 달러는 5년에 걸쳐 미국 내 공장 건설 기업 및 연구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도 제공한다. 대중(對中)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5일 반도체법에 의거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60억 달러(8조원)를 확보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앞서 설비 증설을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양산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최근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는 투자금 확보가 원인이 됐다. 지원 확정 후 설비 증설 계획이 나온 셈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금 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디애나주 자체적으로 세금 환급을 통한 5억 5400만 달러(7440억원) 지원과 보조금 및 성과급 명목에 따른 지원만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반도체 위탁생산) 설립 계획을 밝히고 2022년 착공했다. 이르면 올해 올해부터 대량 생산 및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11월 파운드리 사업 본격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지유세에 환호하는 유권자들 (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이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아래)같은날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선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유권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뉴스

개발 공약만 2239건... 수도권 집값 들쭉

총선 후 부동산시장 향방
장밋빛 공약에 기대감 선반영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오름세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 다수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방안이 쏟아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선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다 일부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된 곳도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건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136개, 893개로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단 철도 지하화는 양당 모두 내세웠다. 여당은 경인전철과 경부선 철도

<22대 총선 정당별 개발공약수 현황>

분야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녹색 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계
개발공약수	1136	893	28	99	54	29	2239
비율	50.7%	39.9%	1.3%	4.4%	2.4%	1.3%	1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주요 고속도로까지, 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GTX) 및 도시철도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 단기간 착공을 증가시켜줄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공통적으로 도심구간의 철도 지하화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여당은 전국 주요권역에 GTX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과 신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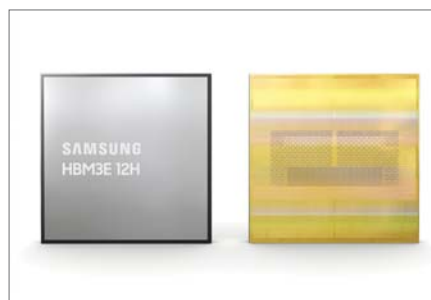
야당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과 함께 2기, 3기 신도시 건설로 균형발전을 내걸었고, 대학교 공공기숙사 확대와 함께 전국민 기본 주거공급도 밝혔다.

선거구별로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기본으로 학교나 병원 유치, 체육시설이나 공원, 워터파크 신설 방안까지 나왔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속 등 실현이 다소 불확실한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책을 비롯해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발표, 국토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도 줄줄이 발표된 바 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SK하이닉스 HBM3 D램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 장진영 가처분 패소에 "언론 입 틀막 시도에 대한 정당한 판결" /사진 뉴시스
- ▲ 한 총리 "탄소배출 2010년 수준으로 줄여... 450조 투입해 녹색경쟁력 강화"

- ▲ 민주, 윤 대통령에 "공무원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아냐"
- ▲ 한동훈, 이재명·조국 비판... "범죄 혐의자에게 미래 말할 수 없어"



- ▲ '양문석 논란' 새마을금고, 내일부터 정기감사... '용도 외 유용' 점검 /사진 뉴시스
- ▲ '아빠, 벌써 봄이네'... 천안함 피격 유족 편지 영상, 천만명 봤다